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사냥꾼이 돼라

“사냥감이 될 것이냐, 사냥꾼이 될 것이냐” 사냥감이 되는 것도 나요, 사냥꾼이 되는 것도 나다.

그렇다면 사냥감 인생과 사냥꾼 인생의 차이가 뭘까? 사냥꾼은 목적 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지만, 사냥감 인생은 늘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산다. 사냥꾼은 사냥감이라는 목적을 두고 살기에 삶이 늘 흥분되고, 사냥감을 획득했을 때 환희를 맛본다. 즉 사냥꾼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사냥감은 언제나 주위 환경에 휘둘리고 공격 대신 방어만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전진이 없다.

나는 다분히 사냥꾼의 성격을 지녔다. 뭔가 타킷이 생기면 나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잡으려고 질주한다. 사도 바울이 핏대를 향하여 질주했듯이 나 역시 목표를 위해 귀는 막고 앞만 보고 달리는 사냥꾼의 성향이 짙다. 올해 나의 목표는 ‘서울교회 성전을 짓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 나는 기도하면서 동분서주, 전심전력하고 있다. 반드시 이를 것이다.

당신의 올해 목표는 무엇인가? 당신의 5개년 목표는 설정되어 있는가? 찾는 자는 찾게 되어 있고, 쫓는 자는 잡게 되어 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라. 그녀 역시 사냥꾼의 기질이 있다. 목적인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사냥감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기질이 있는 여인이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에게 못 들을 소리를 들어도 끄떡도 하지 않았다. 되레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당차게 응수하며 자식만 고치면 된다는 분명한 목적을 추구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다.

그렇다. 믿음은 구하면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찾으면 찾는다고 믿는 것이며,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고 믿는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 아닌가. 그러면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처럼, 한밤중 친구에게 떡을 구한 자처럼, 네 명의 친구를 동원한 중풍병자처럼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 결국 목적달성을 하게 된다. 올해, 멋진 사냥 한 번 해보자.

기한 없는 목표는 실패 없는 총과 같다

노량진 교육관 확장공사를 통해 성전 2개가 마련되었다. 연일 이곳에서 새벽기도회 및 총회장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저녁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음은 물론, 문래동에 있던 청년부 교육관을 노량진 교육관으로 옮겨와 대학청년부 연합예배체제로 변화를 일으킨 총회장 목사님께서 매주 토요일 직접 중고등부 예배와 대학청년부 예배까지 인도하고 계신다. 목사님 말씀처럼, 이 젊은이들은 우리 교단의 꿈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기에 전대미문의 기적을 일으킬 2025년 새해에 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다. 기업에서도 연말이 되면 내년 매출을 분기 단위로 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여러분 삶에도 전도에 대한 계획, 공부에 대한 계획, 결혼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기한을 정해야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 ‘이번 한 달 안에 우리 팀을 몇 명 전도하겠다!’, ‘나는 내년 취업을 위해 매일 3시간씩 스페인어 공부하겠다!’ 이렇게 정확한 기한이 있어야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달성까지 이루는 것이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전대미문의 축복을 이루려면 자기 생각을 감시하고 관리해

기적을 이루는 지혜와 능력은 방언기도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며, 과거 예배 장소를 올림픽공원과 88체육관으로 옮길 때 방언기도를 통해 장소를 찾은 일화를 말씀해주셨다. 이는 실제 방언기도가 삶에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지 체험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다. 이후 목사님은 대학청년부 젊은이들과 함께 한 시간 동안 방언기도를 같이 하셨을 뿐 아니라 직접 청년들 한 명 한 명마다 일일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시며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다. 마치 이 현장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강림과 수련회 성



대학청년부 연합토요일예배(2025년 1월 11일 노량진 교육관 대성전)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겠다.

지난 11일 토요일, 총회장 목사님께서 ‘목표를 설정하고 포기하는 것은 자살과 같다’라는 주제로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 절대 포기하지 말 것(Never give up!)을 강력히 선포하셨다.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고 능력을 행하자고 올해 표어를 만들었다. 그래서 다들 각자 목표를 세웠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축복과 기적을 행하려면 기한이라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 목표와 타겟만 정하고 기한이 없다면 유명무실한 일로 끝나는, 실패 없는 총이 되어버리고 만다. 나는 올해 서울 성전을 짓겠다는 목표가 있다. 그래서 도면을 설계사무소에 맡기고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전후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이

야 한다.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동지를 틀고 있나 생각해보라. 부정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생각이나? 생각이 결과를 낳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자라게 놔두면 안 된다. 내 나이는 70대 중후반이지만 나는 40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대학청년부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동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을 힘차게 밀어주실 것이다. 청년들이 패기를 가지고 목표와 꿈을 이루는 사냥꾼이 되어야지, 현실과 환경에 순응해버리는 사냥감들이 되면 안 된다. 기한을 정하고 꿈과 목표를 꾸준히 쫓아가라. 반드시 잡을 것이다.”

또한 목사님께서 전대미문의 축복과

령세례와 같은 역사였고, 청년들도 전심을 다해 기도했다.

“보일러를 자동으로 해놓으면 집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자동조절이 된다. 방언기도 또한 마찬가지다. 추워진 집을 처음부터 데우려면 기름이 많이 소모된다. 그러나 자동조절 시스템으로 맞춰놓으면 오히려 연료 소모가 적다. 무시로 스스로 기도하는 방언기도라는 자동보일러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심령을 뜨겁게 하라. 방언기도는 영과 혼과 육의 보약이다. 반드시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2025년, 모두가 전대미문의 축복과 기적을 이루는 젊은이들이 되길 바란다. 할렐루야!”

송현해 생도
charisma0691@hanmail.net

2025학년도 예수중심제자신학원 전기 신입생 모집
원서마감: 2025년 2월 16일(주일),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딤후2:20~21)

내 것을 찾으면 남의 것에 욕심내지 않는다

올해, 전대미문의 복을 받으시라. 그러려면 내 재능, 내 적성, 내 배필, 내 직업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최소한 한 가지씩 재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처럼 더러는 다섯 달란트를 주신 자도 있고, 두 달란트 주신 자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모두에게 한 달란트씩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듯이 받은 재능을 활용하여 이 세상을 넉넉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받은 재능은 무엇입니까? 그림을 잘 그립니까? 노래를 잘합니까? 요리를 잘합니까? 꽃꽂이를 잘합니까? 달리기입니까? 아니면 남들을 재미있게 하는 재주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재능입니다. 그것을 더욱 계발하면 인생을 신나게 살 수 있고,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재능이 없다고요?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고, 자기가 낳은 알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타조도 달리는 재주가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재능을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너는 유일한 사람이다 너의 달란트를 찾아라

왜 재주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압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찾아야 하는데,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쪽만 넘겨다보니까 내게는 '저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정리 정돈을 잘하는 재능'이 있는데, 저 사람이 가진 '노래 잘하는 재능'을 부러워하니까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재능을 봐야죠. 요즘 정리 정돈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사업체를 이끄는지 압니까? 바빠서, 혹은 정말 정리를 못해서 복잡하고 지저분한 집이나 사무실을 깨끗하게 정리해달라는 주문이 쇄도한다고 합니다. 정리업체를 운영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정리를 잘하는 줄 몰랐는데, 자기 집에 놀러 온 옆집 사람이 '집안이 너무 깔끔하네요. 우리 집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해서 옆집을 정리해주시니 그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 마침내는 그것으로 사업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것을 찾은 거지요.

제가 왜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든 지치지 않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지 압니까? 재물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가 딱 맞습니다. 하면 할수록 어찌면 제게 딱 맞는지...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세상이 있다 해도 목사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입니다(롬9:21). 토기

장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용도를 쓸지 미리 생각하여 만듭니다(잠16:4). 저도 예전에 도자기를 만들어봐서 잘 압니다. '이번에는 밥그릇으로 만들어야지' 생각하고 흙은 펄서 틀을 돌려 만듭니다. 밥그릇은 밥을 담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 멋진 유리컵도 있는데, 나는 왜 하필 밥그릇이냐?' 하고 한탄한다면 그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 힐문하는 꼴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만드셨겠습니까? 종지로 만들어졌다면 간장을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종지가 장독대의 큰 항아리만 못하나요? 아닙니다. 종지도 다종종



총회장 이초석 목사

지는 작은 것일 뿐이지만, 매일 주인 밥상에 오르는 혜택을 입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십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화음을 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에 피아노도,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트럼펫도 필요한 것처럼 의사도 만들고, 판사도 만들고, 선생도 만들고, 춤추는 사람도 만들고, 노래하는 사람도 만들고, 경찰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심벌즈가 '왜 하필 나는 심벌즈냐?' 하면서 안 쳐버리면 어찌 됩니까? 음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심벌즈를 '꽁'하고 쳐줘야 음악이 완성되는데 말입니다. 오케스트라 단원 중 가장 뒤쪽에 앉아 있다고 오케스트라 단원이 아닙니까? 똑같은 단원인 겁니다. 다 대통령일 수 없고, 다 사장일 수 없고, 다 목사일 수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술 습득에 능한 사람이 있고, 몸 쓰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저렇게 생긴 사람이 있는 겁니다. 포클레인처럼 큰 연

장도 있지만, 호미같이 작은 연장도 있습니다. 포클레인이 큰일은 하겠지만, 정원을 가꿀 때 포클레인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호미가 제격입니다. 성경에도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고전12:29~30)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만 하나님 일합니까? 선지자만, 교사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꽃꽂이를 하는 일, 현금위원, 안내위원, 차량봉사, 성가대 등등..., 이틈도 없이 빛나고, 이틈도 없이 일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보다 성도가 몇 명 안 되는 작은 시골교회 목사가 더 상이 많을 수 있고, 황새보다 뱀새가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뱀새인 것을 알고 뱀새로 살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뱀새가 황새를 부러워해서 쫓아가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지고 불행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재능을 다양하게 주셨지, 우리에게 하찮은 재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남의 것과 비교하여 내 재능을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자주 신는 신발은 해외선교팀인 한은택 목사 내외가 사준 것입니다. 일전에 멕시코 집회를 갔을 때 실업인 세미나를 해줬더니 어느 기업인이 고가의 명품 신발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에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한은택 목사를 뵈더니 잘 맞더군요. 그런데 그 부부가 제게 신발을 선물했는데, 그 신발처럼 명품은 아니지만 이게 너무 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럼요, 명품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게 맞아야 좋은 겁니다. 남이 볼 때 좀 하찮은 일 같아도 내가 편하고 좋으면 그것이 명품이요, 그것이 행복인 겁니다. 맞지 않은 신발을 신으면 발꿈치가 까지고 물집이 잡히는 것처럼, 내 것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살면 인생에 고름이 나고 물집이 잡혀 아픈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하수구를 뚫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는 제게 와서 "목사님, 저도 의사입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의사는 몸을 고쳐주지만, 자기는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니 자기도 의사 못지않다는 거죠. 그분은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 재미있고, 보람도 있고,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단점을 보완할 시간에 장점을 발전시켜라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억지로 애들 의사 만들려고 하고, 억지로 검사 만들려고 하면 그 자식 인생 죽이는 겁니다.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적성에 맞는 걸 시켜야지, 왜 자식에게 남의 인생을 살라고 강요합니까? 대리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욕심입니다.

어느 자매에게 좋은 혼처가 났습니다. 상대는 명문대를 나오고 집안도 그야말로 빵빵한 터라 추천했는데 이 자매가 거절하는 겁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저는 저에게 맞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웃이 저에게 너무 큼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웃이 맞아야지요. 아무리 좋은 웃이라도 크면 무너리가 됩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남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닌다고 일등 신랑감이 아니라 나와 맞아야, 신앙이 맞고, 인생관이 맞고, 가치관이 맞아야 평생 해로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직장, 나에게 맞는 일, 나에게 맞는 음식,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사기 9장에 나오는 비유처럼 감람나무는 기름 짜는 일을 하면 되고, 무화과나 무나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괜히 자기 것도 아닌데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맞는 직업, 내게 맞는 배필, 내게 맞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면 행복해집니다. 절대 손이 발이 될 수 없고, 발이 손이 될 수 없습니다. 발이 손보다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되레 덜 귀히 여겨 보이는 것들이 더욱 존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재능, 달란트를 감사히 여기고 그 장점을 살려 전전합시다. 괜히 단점을 보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
를 나누며 새해의 시작을 기뻐합니다. 그
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복을 받을 자
격을 갖추어야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
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
지만 하늘나라의 상급과 이 땅에서의 축
복은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축복을 약
속한 구절에는 ‘그러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축복이라는 것
입니다. 앞에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
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
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
숙한 신앙생활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
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백향목 궁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을 가슴 아파
하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
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나라
를 강성부국이 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
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대신 해주시
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 세상을 보는 창 ::

나를 이기는 습관-인내

다중지능인지론을 주장한 하워드 가드너
(Howard Gardner)에 의하면 ‘창의적인
전문가는 10년 주기로 새로운 역사의 장
을 펼친다’고 한다. 즉 꾸준히 10년 동안
인내하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 본 사람만
이 창의적인 전문가로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948년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장에는 유
독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영국 수상 윈스
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졸업식 축
사를 맡았기 때문이다. 청중들은 숨을 죽
이고 그의 연설에 귀를 기울였다. “포기하
지 마십시오(Never Give up)!” 처칠은 첫
마디를 그렇게 시작하면서 천천히 청중들
을 둘러보았다. 이어질 그다음 멘트를 기
다리는 청중들을 향해 처칠은 다시 말했
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
십시오(Never, Never, Never Give up)!”
그리고 처칠은 연단을 내려갔다. 졸업식장
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침묵에 휩싸였
다. 잠시 후 청중들이 처칠의 메시지에 담
긴 숨은 뜻을 깨달은 뒤 다시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처칠은 이른바 팔삭둥이에 말더듬이요, 학
습장애까지 있어서 성적이 꼴찌인 적도 있
었으며, 실제로 초등학교 학적부에는 ‘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
도하지만, 그 복을 받았을 때 약속을 지키
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매한 자
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하나님
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곤 합니다. 그러
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
고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저절로 열매를
맺고 부족한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이성과 상상력
을 통해 자신의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어놓
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기
독교는 다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셨습니
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가야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
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
리 존재의 목적이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헛된 부귀영화
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아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
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
나라에 상급을 쌓는 비결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고, 그
분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여 전
대미문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화평 목사

:: 세상을 보는 창 ::

난공사에 이익이 많다

학창시절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잡고 씨
름하던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한 문제
를 놓고 연습장에 풀고, 다시 풀어 결
국 답을 알아냈을 때 그 기쁨과 만족
감은 대단했었다. 그 자신감이 수학하
면 지레 겁먹던 자신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인생도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인
생의 우여곡절 끝에 주어진 성공은 더
욱 값지고 귀한 것이다. 자고로 난공사
에 이익이 많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 우리가 지금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고통으로 인
해 성과도, 기쁨도 배가 되리라 믿는다.
보물찾기에서 정말 좋은 상품은 아주
깊이 숨겨져 있다. 보이지도 않고, 손이
잘 안 닿는 곳에 있기 마련이다. 성공이
란 좋은 보물같이 숨겨져 있어 찾으려
고 발로 뛰어야 하고, 눈을 부릅뜨고 사

방을 둘러보아야 하고, 손을 뻗어 건져
내야 하는 것이다. 성공이 단순히 얻어
지는 것이면 뭇 하러 댕 자고, 댕 먹고,
댕 놀고 뛰어다니겠는가.
문제를 징검다리 삼아라. 징검다리에
놓은 돌이 클수록 멀리 점프할 수 있
듯, 문제가 클수록 이익이 많고 얻어지
는 것이 많다. 징검다리가 있으니 개울
을 건널 수 있는 것 아닌가.
만사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부정적으
로 보면 죽을 일밖에 없으나 긍정적으
로 보면 만사가 다 성공의 길로 안내하
는 가이드로 보인다.
힘들다고 작은 돌만 건너려고 하면 내
를 건너기 어렵다. 작은 문제만 다루면
어느 세월에도 물에 오르겠나? 큰 돌을
던고 멀리 점프하라.
이초석 목사 저서 ‘적보다 무서운 것은
무능한 지휘관이다’ 중에서



:: 낮은 울타리 ::

전지전능한 나의 조력자

한국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여러 가
지의 클리셰(cliché)가 있습니다. 클리
셰는 ‘진부한 상황, 줄거리의 기법, 주제’
를 말하는데, 그중 가장 흔하게 등장하
는 것이 바로 신데렐라 클리셰입니다.
다사다난한 여자 주인공 삶에 나타난 능
력 있는 남자 주인공이 신데렐라 클리셰
의 가장 기본 되는 설정입니다. 그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을 고난과 사고에
서 구해주고 삶을 바꿔줍니다. 그런 드
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는 현실에서는 쉬
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달콤한 이야기는 나의 삶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못하는 게 없으
셔서 전지전능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나를 절절하게 사랑하는
분,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입
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를 이렇게
나 많이 사랑하는 분이 전지전능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다니 말입니다.
저는 최근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시
작하기 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험이
없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거대처와 제 제
품을 맡길 공장을 찾는 것 하나하나 불

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 신
데렐라 클리셰가 생각났습니다. 제 옆
에는 나를 지독히도 사랑하는 전지전능
한 하나님이 날 위해 계실 거라는 그런
당연한 이야기! 그 생각을 하니 도전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 하나님께 매일 아침 일어나 기도하고
간구하니 신기하게도 제가 좋은 업체를
찾을 수 있게 인도해주시고, 그 업체의
도움으로 큰 실수도 넘기게 되는 경험
을 했습니다. 거대처의 실수로 제작된
제 제품이 분실됐을 때도, 오히려 그걸
해결하면서 늦게 나온다고 했던 다른 제
품도 잃어버린 제품과 함께 당일애 모두
나오게 해주셨고, 매출이 저조했을 때
도 광고가 갑자기 잘되어 주문이 들어오
게 해주셨습니다. 드라마 속 몰래 뒤에
서 도움을 받던 주인공이, 하나님과 함
께하니 바로 제가 되었습니다.
2025년 전대미문의 기적과 축복을 얻
고 싶으십니까? 전대미문의 능력과 전
대미문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신 하
나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노력이라는 두 친구로
2025년, 전대미문의 기적을 맛봅시다!
장수정

이정금 전도사

부지중이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2025. 1. 12 이시대 목사 설교)

총회장 목사님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죄는 회개하면 된다. 그런데 나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죄가 있다. 내가 죄를 지은 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니 그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죄, 그것이 ‘부지중에 저지르는 죄’입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니 당연히 회개하지 않죠. 그러니 문제가 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일부러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즉 부지중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그게 그렇다고?’ 하며 화들짝 놀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지시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실행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저를 무시한 것 맞지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압몬 왕 나하스에게 받은 은총을 생각하여 나하스가 죽자 애도를 표하기 위해 조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인 하논의 신하들은 이것을 호의가 아니라 정치적 계략이라고 보고했고, 하논은 다윗의 사절단을 철저히 능욕했습니다. 이 소식에 다윗은 분노하였습니다. 조문 사절단을 보낸 다윗을 멸시한 처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고, 암몬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법제가 들어올 때 기뻐 춤을 추다가 몸이 드러난 것을 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자 다윗이 평생 미갈 처소에 들지 않아 자식이 없었습니다(삼하6:23).

사람을 멸시해도 이런 보복을 당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면 어찌 될까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러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를 어찌 안 보셨겠습니까.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는데 나단의 말이 이랬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와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삼하12:9). 10절에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헛 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은즉”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까. 다만 욕망에 사로잡혀 저지른 죄이건만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당신의 계명을 어긴 다윗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말씀하시고, ‘같이 네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대가를 지불케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 옮겼습니다. 분명 2절에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 옮기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셨는데, 막상 옮길 때 어깨에 메지 않고 새 수레에 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지요. 그러니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가 뛰고,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니 옷사가 그것을 잡다가 죽고...,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 것입니다.

다윗이 이를 보고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 옮기기를 두려워하여 오벧에돔의 집으로 어깨에 메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법

대로 하니 오벧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요14:21~24)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한 것은 그의 마음에 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애굽왕이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거든 죽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 명령을 어기고 살렸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애굽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출 1:17) 그리한 것입니다. 21절에는 그 두려운 것이 ‘경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지중이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김창옥 장로님이 과로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저도 한 번은 뵙고 싶어서 가족의 양해를 얻어 중환자실에 가서 뵈었는데, 때마침 인공호흡 관을 제거하게 되었습니까. 자가호흡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인공호흡 관을 뺀 김창옥 장로님의 첫 마디가 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였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신히 입을 연 순간 그 말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중환자실 밖에 있던 장로님의 아내분에게 전했더니 갑자기 전화기를 꺼내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자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 김창옥 장로가 깨어났어요.” 하는 것 아닙니까. 늘 총회장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먼저 알려드리고픈 마음이 든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져 물을 고친 것처럼, 우리 마음을 고쳐야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잠22:4)고 하셨으니까요.

전대미문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전대미문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부지중이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맙시다. 늘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지니고 삽시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말3:16~18).

함께 기도하여 서울성전을 지읍시다



성도들은 우리 총회장 목사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열 문둥병자를 조건 없이 고쳐주셨는데, 그중에 아홉은 어디로 가고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 사례하였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돼지, 소를 왜 키웁니까? 잔칫날 잡으려고 키웁니다. 에스터를 왜 왕후로 세웠습니까? 유다 민족이 멸절되게 생겼을 때 살리기 위해 세웠습니다.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필요할 때 쓰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나라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성도들이 이처럼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교단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안전합니다.

멕시코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당신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사형시킬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자 멕시코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그러면 하루만 시간을 달라. 사형을 하루만 연기해달라’고 하고는 미국 정부에서 파견된 사람이 멕시코로 넘어가 그 사형수 몸에 미국 국기를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이려면 죽여라’ 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미국을 죽이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 자유를 주셨고, 광야생활 40년 동안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생활 40년을 마치니까 젃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중심교단은 체육관을 전전하며

40년을 지냈습니다. 2025년, 우리에게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노량진교육관에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 하갈이 쫓겨나간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방성대곡하고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여시고 샘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노량진교육관에서 새벽과 저녁에 총회장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방성대곡하고 울 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 샘을 발견한 것처럼, 성전 터를 보게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모임에 동참합시다. 불평하지 말고, 오직 순종하여 대업을 이뤄봅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서울성전부지를 보게 하시고,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택예수중심교회 박종수 목사